| 현불 논단 |

걸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청계천 따라 4년째 학교 출퇴근
건강으로 시작… 12~3km 걸어
사계절 변화 느끼는 하루 즐거워

미세먼지 원인 놓고 중국 탓 많아
수도권 미세먼지 22% 경유차 유발
우리사회 책임 대해서도 살펴봐야

자신서 시작되는 실천이 해결 시작
습관처럼 자가용 운행보단 걸어보자
걷다보면 의외로 얻는 것이 많아진다

광화문에서 청계천을 따라 거의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햇수로 4년쯤 되었다. 처음엔 자꾸만 나오는 뱃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욕심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독이 되었는지 하루라도 거르면 영 마음이 개운치 않다.

이 시각 청계천 산책로 언저리에는 산수유와 수양버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중이다. 겨울동안 잠자던 개울물도 제법 큰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있고. 모든 사물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는 나도 덩달아 힘이 솟는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걷다보면 어느새 관수교에 이른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 유명한 을지로 공구상가를 만난다. 각양각색의 공구들은 신나는 구경거리나 마찬가지다. 저절로 눈이 즐겁다. 나도 모르게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남산 방향으로 20분쯤 계속 걷다보면 명보극장을 지나 충무로역 부근에 닿는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이면 한옥마을을 가로질러 남산 순환도로를 따라 걷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곧장 학교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하며 출근을 서두른다. 이렇게 걷는 것이 일과가 되다보니 나는 늘 길 위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나에게는 오늘 하루가 다시 새롭고 또 행복하기만 하다. 이렇게 걷는 거리가 하루에 12~13km 정도 되는 것 같다.

요즘 미세먼지가 대통령의 이름을 빗대 문(文)세먼지라고 조롱받을 정도로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발생 원인을 둘러싸고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중국과는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 삼을 것은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 탓으로만 치부하는 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미세먼지 발생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할 수 없다면 미세먼지의 해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래서 감히 해보는 말이다. 습관처럼 자가용을 몰고 나오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보자는 주제넘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중(22%)을 차지하는 것은 경유차라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솔린 자동차도 이에 못지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각종 자동차가 내뿜는 연소가스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걸어야하지 않을까. 이미 자동차의 편리함에 너도나도 익숙해져 있는 지금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는 핀잔을 듣더라도 나는 우리 모두 감히 더 많이 걸을 것을 권유코자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윤리의 실천이야말로 보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걷다보면 불가에서 말하는 행선(行禪)의 경지에 올라 가끔 선열(禪悅)에 잠기는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이전보다 마음이 훨씬 더 너그러워지는 경험도 자주 하게 된다. 시간을 내서 따로 운동하기가 어려운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걷기'는 다이어트 효과와 함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최고급 헬스기구나 마찬가지다.

걸으면서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하다보면 의외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일단 한 번 걸어보시기를.

社說

태고종, 사회법 제소는 신중하길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종단 역사상 첫 중앙종회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이 같은 중앙종회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종단 안팎에서는 양측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사회법 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편백운 스님과 종단 중진 스님들은 각종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편백운 스님은 원로의장, 총무부원장, 전임 총무원장 등을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거나 벌금형을 받고, 일부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종회 측도 편백운 스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법적공방을 벌이는 스님들이 종단을 대표하는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태고종은 총무원장 불신임 과정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개개인의 고소고발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대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조용하게 수습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만약 불신임 과정에서 사회법 제소 외에 해결방법이 없는 이른바 '막장'에 다다른다면 태고종은 2015년 폭력으로 얼룩진 분규사태와 같은 오명을 다시 한 번 뒤집어쓸 것이다.

이 경우 한때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에 이어 전통종단으로서 2위의 교세를 떨친 태고종은 옛 영광을 더 이상 찾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 부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종단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 환영한다

난해했던 문화재 안내판이 전면 개선된다고 한다. 문화재청이 3월 13일 밝힌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 따르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전국 1,392개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 약 2,500여 개를 대상으로 개선작업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관람객이 많이 찾는 고궁과 조선왕릉, 고도(古都)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에 있는 주요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 1차적으로 이뤄졌다.

사실 불교를 비롯한 고궁, 왕릉, 향교 등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석탑의 부위를 상륜부 · 탑신부 등 각종 불교 · 미술용어들을 완벽하게 알고 안내문을 해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 문화재청이 사례로 제시한 범어사 삼층석탑의 경우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설명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원형 훼손 · 범어사 창건 배경 등 전반적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놓았다. 탑의 도상을 삽입 · 설명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환영할 만하다.

물론 문화재 안내판의 개선이 너무 풀어 설명하다보니 불교를 잘못 전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스님과 일부 불자들만 이해 가능한 문화재 안내판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특히 한문을 별도로 배우지 않는 젊은 세대에게 한자가 많은 안내판은 외계어일 뿐이다. 개선된 안내판이 지향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시대에 맞는 전달법일 것이다.

특별기고

불교의 구국정신 되살리자



선진규
정토원 원장

만해 스님은 민족대표 33명 중 누구보다 초지일관 변치 않고 끝까지 싸우다 1944년 광복 전 해인 6월 29일 일본인들의 감시 하에 생을 마쳤습니다. 혹독한 일제 치하에서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홀로 저항했던 끈질긴 행위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대신한 저항으로 상징됩니다.

돌이켜 보면 100년 전 3.1 만세운동은 나라 잃은 절망과 분노가 하늘로 솟구친 거사로서 자유와 평화와 독립의 중요성을 외친 민중의 항쟁이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으로 7,500명이 피살되고 1,600명이 부상당했으며 46,000여 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시위는 1,500여 회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불교는 3.1운동 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합니다. 31개 본사를 갖춘 불교는 당시 큰 종교조직이었기에 내부로 은밀히 독립운동가들을 피신케 하고 독립자금을 마련해 상해임시정부를 지원했습니다.

스님들도 독립운동에 적극 나서 인천 만국공원에서 박한영 스님을 대표한 13개 대표자회의, 임시정부 대표단 파견을 위한 봉춘관 국민대회, 김법린 스님을 중심으로 한 범어사의 부산 항일시위, 제주도 법정사 독립운동, 월정사 도피안사 만세운동 등도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찰에서 결사가 진행됐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며 상해 임시정부 수반인 김구 선생이 임정 요인들과 환국 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월정사 주지였으며, 일제 치하에서 중앙종무원장을 지냈던 이종욱 스님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인들이 "그 분은 친일 스님인데 왜 찾습니까"라고 하니 김구 선생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간 전국 사찰에서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모금하여 제일 많이 보낸 스님"이라고 밝습니다.

현재 이 같은 불교계의 노력은 불교만이 갖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1953년부터 비구 대처 정화가 시작되며 당시 사원을 관리했던 세력이 물러남과 함께 독립운동 자료와 증인이 대거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제자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이때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전쟁이 일어날까 가슴을 졸인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쟁 분위기가 사라지고 평화의 바람이 한반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불자들의 각오가 남달라야 하겠습니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다한 탐욕의식과 집착을 버리고 신라통일의 길잡이가 된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 고려 정신문화를 일으킨 보조 국사의 일심사상, 임진왜란 때 서산 사명 영규대사의 구국정신,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던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등을 바탕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 자타일시 동시성불(一切衆生 皆有佛性 自他一時 同時成佛), 미래를 선도할 부처님의 이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우리 선대가 일으킨 자유 평등 평화의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3.1절 100주년을 기해 이제 불교의 정신문화가 세계를 선도할 정신문화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도원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52번길 400(낭월동)
• 주 지 : 월현 혜광 (속명 : 전광호)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사)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